

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(시)

제목

대문이 없던 날들

제주엔 한때 대문이 없었수다

흙칠 게 없어서가 아니라
흙칠 맘이 없어서

정낭 세 개 걸리면
주인 대신 이웃이
소도 먹이고 돼지도 돌봤수다

남의 것을 내 것처럼 아껴줬던
그런 시절도 있었수다

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었을까?
나는 할명에게 물었수다

할명은 가망 웃으멍 조용히 말했수다

남의 것도 귀하단 걸 알았던 거지